

한상동 목사는 1975년 8월 18일 고려신학대학 준공식 예배의 설교로써 그의 공적 강도시간을 종식하게 되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끝내고 1976년 1월 6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다.

약 30여년의 역사를 지내오는 동안 고신은 이 땅에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남기며 지금까지 유지되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1982년 제 32차 총회에서는 지난 1975년 분립되었던 경남지방 중심의 반고소파 150여 교회가 영입되므로 한국 교회사에 유례없는 “하나님”의 전통을 남겨 준 것은 특기할 일이라고 하겠다. ♣

## ‘골로새 이단’에 관한 주석적 고찰

원 3년 윤 원 환

### 1. 문제의 논거

**골로새** 새 서신에서 대두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비복음적 교훈을 바울에게 알리려 왔다고 볼 수 있는 이 종교적 거짓교훈의 형태가 무엇이며 그들의 주장점과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있다.<sup>1)</sup> 그러나 이 교훈이 어떤 성격의 것인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모든 가정적 주장들과 사고들에 기인한 많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성격을 나타낼 수는 없다.<sup>2)</sup> 그 이유는 우리가 ‘골로새 이단’<sup>3)</sup>에 대한 어떤 뚜렷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4)</sup> 단지 단편적으로 바울이 사용한 공격적인 용어가 취급되어지고 있는 데, 이 용어는 연구방법과 범위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sup>4)</sup> 결국 이 이단에 관한 모든 성격구명은 이 서신에서 나타나는 부분적인 바울의 언급에서 그리고 그가 그것에 대항해서 기독교 진리의 특별한 관점에서 그 대응책을 강조한 언급에서 추론되어 질 수

(註) 1) H. C. G. Moule, Colossian and philemon Studies (Pennsylvania: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75), p.7.

2) H. Ridderbos, Aan de Kolossenzen (Kampen: N. V. Uitgeversmaatschappij J. H. KOK, 1960), p.104.

3) 거의 모든 학자들이 ‘Colossian heresy’로 부른다.

4a) F. F. Bruce,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7), p.165.

4b) Ernst Lohmeyer, Die Briefe und die philipper, Kolosser und an Philemon (Göttingen: Vandenoek & Ruprecht, 1964), p.40.

밖에 없다.<sup>5)</sup> 분명히 본 서신에는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 거짓교훈의 선전사상과 그 표어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개의 결정적이고 투쟁적인 귀절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귀절들이 바울이 대면한 그 거짓교훈의 동일한 모습을 재구성하도록 가능케 해 주는 것으로 기대한다.<sup>6)</sup>

## 2. 이단적 요소의 일반적 고찰

첫째로, 본서신 본문에 나타나는 이단적 요소의 조사에서 Findly는 이 거짓교훈의 성격을 여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다.<sup>7)</sup>

- 1) 이 교리는 철학적 성격을 띤다.(2:8)
- 2) 그들은 유대주의자들(Judaists)이다.(2:11, 14, 16, 17)
- 3) 그들은 천사를 숭배한 자들이다.(2:10, 15, 18, 19; 1:16)
- 4) 그들은 모세율법을 초월하여 금욕적 규칙들을 주입시켰고, 그것들을 장려하였다.(2:20-23)
- 5) 그들의 교훈체계는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권위 및 그의 구속의 충분성을 제한하려고 했다.(2:8-10, 17, 19; 1:14-20)
- 6) 그들은 기독교 교사들이며 기존 기독교인들을 보다 더 높고 고상하며 안전한 영적생활에 초대한다고 공언하였다.(1:23, 20; 2:3-10, 16-18, 23; 3:1, 14, 15)

그래서 Findly는 이 골로새 거짓교사들을 철학적, 유대주의적, 환상적, 금욕적인 기독교인들로 보았다.<sup>8)</sup>

둘째로, Martin은 다음과 같은 관련귀절들을 추출해냄으로써 거짓교훈의 동일한 상을 건설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sup>9)</sup>

(註) 5) F. F. Bruce, op. cit., pp.165f.

6) Ralph P. Martin, Colossians; The Church's Lord and The Christian's Libert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3), p.5.

7) G. G. Findly, Colossians(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2), p.5.

8) Ibid.

9) R. Martin, op.cit., p.5.

1) 골 1:19. "For in Him all the fu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안에 거하게 하시고)

2) 골 2:18. "insisting on self-abasement and worship of Angels"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숭배함을 인하여)

3) 골 2:21. "Do not handle, do not taste, do not touch"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4) 골 2:23. "rigor of devotion and self-abasement and severity to the body"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리고 매우 가능성있게, "우주의 초보적 정령들"(elemental spirits of the universe)에 대한 언급(2:8, 20)은 이방 신지학적 종교(Theosophy)의 부분으로 주장될 수 있는 용어로 지적된다고 Martin은 말하면서 이 거짓교훈이 이론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도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sup>10)</sup>

셋째로, Ridderbos는 이 이단의 성격을 두가지의 요소로 요약하였다.<sup>11)</sup>

1) 이들은 불가견의 세상에서 특별한 지식과 통찰을 내세우는 종교적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자들이다.(예, 2:8의 '철학', 2:23, 2:18 참조) 그래서 그는 비록 다른 바울서신에서도 역시 이와같은 개념이 많이 나타나지만(고린도서신) 골로새서에 있는 '지혜', '지식', '통찰'을 나타내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골로새 교회의 이단사상의 성격과 역시 연결지어서 나타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는 우리가 이 이단을 취급함에 있어서 이방적-헬라적 세계에서의 영향과 상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정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본 연구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고 있다. 다시말하면 이 이방-헬라세계에서는 '지식'(γνῶσις), '지혜'(σοφία), '철학'(φιλοσοφία)과 같은 개념이 종교생활의 영역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sup>12)</sup>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註) 10) Ibid.

11) H. Ridderbos, op. cit., p.105.

12) Ibid.

2) 이 이단은 분명히 강한 유대적 영향을 받았다. 2:16-23 에서 달리 이 이단의 특수성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히 전통적 유대주의가 아니라 영성주의적이며, 금욕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짓교사들이다.

Ridderbos 는 이와같은 사실들을 준거로 이 거짓교훈의 성격이 유대주의적인 요소와 이방의 사변적 요소가 서로 얽혀있는 혼합적 종교사상으로 추론하고 있다.<sup>13)</sup>

끝으로, 지금까지 전술한,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양상의 이단적 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1) 거짓 철학 (골 2:8)

이것은 신비를 발견하며 환상을 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족성과 우월성을 부인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그가 나타내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들을 오도케 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때문임을 진술하고 있다 (2:2-4, 2:8, 9; 2:16, 17). 그리스도의 주권과 완전한 충족성이 서신 여러 부분에서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sup>15)</sup>

#### 2) 유대주의적 의식주의 (골 2:11, 16, 17; 3:11)

이 교훈은 육체적 할례의식, 음식규정, 특별한 절기의 준수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바울에 의하여 '어두움의 일들'로서 반박되었다.

#### 3) 천사숭배 (골 1:16; 2:15; 2:18)

이것 역시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 및 구원자로서의 위치를 격하시키는 시도이다.

#### 4) 금욕주의 (골 2:20-23)

이 경향은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자학적 생활철학이다. 사도 바울은 본 서신에서 이와같은 실천교리의 무용성을 철저히 노출시키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본문에서 추출될 수 있는 이단적 요소들에 관한

(註) 13) Ibid.

14) William Hendriksen, A Commentary on Colossians and Philemon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4), p.18.

15) 골 1:13-20; 1:27, 28; 2:2-4; 2:8-10; 2:16, 17; 2:19; 3:1-4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성격 규명을 시도해 보았는데 이제 이러한 논거들을 통하여 골로새 거짓교훈의 이단적 요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해 보고자 한다.

### 3. 골로새 거짓교훈에 대한 본문 주석적 접근

골로새서신을 통하여 바울에 의하여 반박되어진 이단적 요소들을 검증한 시도로서 필자는 다음의 네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그것에 대한 주석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첫째로, 골로새 거짓교훈의 이단적 요소는 그것이 헛된 속임수로서의 철학(*Της φιλοσοφίας και Κενῆς ἀπάτης*)으로 규명된다(골 2:8).

#### 1) 본문 분석

2:8의 전문을 써 보면 "*Βλέπετε μή τις ὑμᾶς ἔσται ὁ συλαγωγῶν διὰ τῆς φιλοσοφίας καὶ Κενῆς ἀπάτης κατὰ τὴν παράδοσιν τῶν ἀνθρώπων, κατὰ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 …"이다. 이것을 번역하면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는 자가 없도록 경계하라"가 된다. 우리가 유의할 어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등이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두 개념이 'καὶ'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개념을 동일한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sup>16)</sup> 그것은 'Κενῆς ἀπάτης'가 'φιλοσοφίας'를 수식해 주는 명사라는데 착안한 것인데, 그 근거로서는 'Κενῆς ἀπάτης' 앞에 관사와 전치사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sup>17)</sup> 이와같은 맥락에서 다시 번역해 보면 '헛된 속임수인 철학' (The philosophy, which is vain deceit)이 된다. 다음은 'κατὰ' 전치사 다음에 수반된 두 개념의 문제인데 이것은

(註) 16) John Calvin, 골로새서 성경주석, p.594; A. S. Peake,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p.521; R. Martin, op. cit., p.74.

17) A. S. Peake,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61), p.521.

‘헛된 속임수인 철학’의 원리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Klöpper는 이 부분의 고찰에서 ‘Κατὰ τὴν παράδοσιν τῶν ἀνθρώπων’ 다음에 따라오는 ‘Κατὰ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가 ‘Κατὰ’에 의하여 인도되고 ‘Καί’에 의해서 연결되지 않은 것은 후자의 개념은 곧 전자의 개념을 내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sup>18)</sup> 이렇게 볼 때 바울에 의하여 경고되어진 이단적 요소는 ‘헛된 속임수로서의 철학’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곧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기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한 이 거짓교사의 정체는 바울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τῆς ἐσθῆτος ὁ σωτηριῶν’의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단일형태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것인지는 이 문장구조만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 2) 본문 주석

지금까지의 본문분석을 통해서 나타난대로 바울사도에 의하여 경고 받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 즉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헛된 속임수로서의 철학으로 나타난다. 이 철학의 성격 규명에 대하여 두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이 철학을 포괄적인 인간의 관념적 성향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특수한 의미의 종교현상으로 본 것이다. J. Calvin은 이 철학을 설명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해력으로 현명하기를 바랄 때 고안해 내는 모든 것, 즉 이성의 허울 좋은 핑계와 분명한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바울이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된 지혜관으로 포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칼빈은 부연한다.<sup>19)</sup>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좀더 구체적인 현상으로서 이 철학을 설명한다. Martin은 바울사도가 처음에는 중립적인 의미로 ‘철학’을 언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곧 ‘헛된 속임수’라는 용어로 그 철학의 허위성을 심판하는데까지 나아갔다고 설명하면서 이 귀절이 앞의 말

(註) 18) Ibid., p.522.

19) John Calvin, 골로새서 성경주석 (서울:신교출판사, 1979), p.573.

‘철학’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거짓교리가 사람의 고안물이며, 증보적과 예배의 대상으로서 천체세력들(우주의 초보적 정령들)을 고양시키는 거짓교리인 것을 바울이 폭로하고 있다고 보았다.<sup>20)</sup> 그러므로 Martin은 이 ‘철학’을 천사송배에까지 연결시키고 있다(골2:18). Bruce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이 ‘철학’을 포괄적으로 보지않고 유대주의와 이교주의의 제 요소들이 혼합된 교훈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1)</sup> 이 거짓 철학의 구체적인 성격이 바울에 의하여 명시되지 않은 이상, 이 개념의 정확한 규명은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교훈이라는 점에서 어떤 특수한 종교적 경향이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이 ‘철학’은 이미 4절에서 ‘공교한 말’(πιθαρολογία) 즉 그럴듯한 이론으로 신자를 속이는 것으로 바울에게 공박당하였다. 이 ‘철학’의 원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을 따르며 곧 ‘세상의 초등학문’의 원리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면 이 ‘철학’의 원리인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의 원문은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인데 이 ‘στοιχεῖα’의 의미를 어떻게 확증하느냐에 따라서 골로새 거짓철학의 본질규명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στοιχεῖα’는 일반적으로 알파벳 문자, 줄(서열), 신체중의 단순한 일부, 물질계의 기본 원소, 지식의 단순한 원리(히5:12, 갈4:3, 9), 천체의 일월성신(벧후3:10, 12), 천사들의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sup>22)</sup> 골2:8에 나타나는 이 ‘τὰ στοιχεῖα τοῦ Κόσμου’에 대한 번역과 해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고 있다. 하나는 본문에 나타나는 ‘στοιχεῖα’를 단지 종교적 초보지식 혹은 원리(The elementary knowledges or principles of Religion)로 해석하는 경

(註) 20) R. Martin, op.cit., p.74.

21) F. F. Bruce, op.cit., p.230.

22) Gerhard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eoffrey W. Bromiley(tr). Vol. II.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pp.670-682. A.S. Peake, op.cit., p.522.

향이다 (Meyer, Rightfoot, Cremer) <sup>23)</sup>

Delling은 골 2:20에 나타나는 종교적 규정들은 곧 인간의 유전(2:8)의 내용으로서 이것들이 ‘στοιχῆια τοῦ Κόσμου’라고 단정한 뒤에, 이 개념이 골로새 이단의 한 양상이거나 특별한 국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하기를 이 어휘는 단지 이 거짓교훈에 대한 일반 총체적인 반박으로 쓰여졌을 뿐이라고 부연하였다. 결국 그에 의하면 ‘στοιχῆια τοῦ Κόσμου’는 “the elements of the World” (세상의 초등원리들)로 번역되어진다. <sup>24)</sup> 이와같은 견해로써 N.I.V.는 ‘the basic principle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기초원리들), A.V.와 A.R.V.는 ‘the rudiments of the World’ (세상의 초보들), Weymouth 신약성경은 ‘the World’s crude notions’ (세상의 미숙한 관념들)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R.S.V.와 Moffatt 성경은 ‘the Elemental spirits of the world’ (세상의 초보(기초)정령들)로서 번역하고 있다. 위 번역에서 살펴보듯이 ‘στοιχῆια’를 정령으로 보는 것은 ‘στοιχῆια’에 천사의 존재를 연결시키는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문의 ‘στοιχῆια’를 천사의 존재에 결부시켜 ‘Elemental Spirits’ (기초정령)로 보려는 대표적인 학자는 Hilgenfeld, Moffatt, Peake, Martin, Klöpper 등이다.

Klöpper는 ‘στοιχῆια’를 단지 ‘religious rudiment’ (종교적 초보원리)로 보려는 시도를 매우 강한 어조로 반대하면서 그 거짓교사들이 단지 초보적 교훈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역설한다. <sup>25)</sup> 그에 의하면 ‘στοιχῆια’를 단지 천체로 보는 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στοιχῆια’와 대칭되는 원리가 인격체이신 그리스도이므로 ‘στοιχῆια’는 천체나 세상의 물질적 요소들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sup>26)</sup> 그래서 Hilgenfeld, Holster, Klöpper 등은 이 ‘στοιχῆια’를 ‘별정령들’ (the astral spirits) 혹은 ‘천

(註) 23) A. S. Peake, op.cit., p.522.

24) Gerhard Friedrich, op.cit., p.686.

25) A.S.Peake, op.cit., p.522.

26) Ibid.

체계의 천사들’로 간주하였다. <sup>27)</sup> Peake는 좀더 정확한 의미부여를 주장하면서 ‘별들의 정령들’이 ‘στοιχῆια τοῦ Κόσμου’로 불리우는 것은 어색하다고 지적하였다. 후기 유대신학에 의하면, 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은 그들의 특별한 천사들을 갖는다고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στοιχῆια τοῦ Κόσμου’는 모든 물질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기초적 정령들’ (the elemental spirits)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한다. <sup>28)</sup> 그리고 이것들은 천사의 존재와 동일시 된다. 이렇게 볼 때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철학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천사를 대치시켜놓고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적 경향으로 귀결되어진 것이다. Bruce는 ‘στοιχῆια’를 ‘세상의 기초적 정령들’로 일치시켜 천사적 세력에 연결시킨 견해에 동의하면서 말하기를 “골로새에 유행한 이 교훈의 형태는 기독교 이전 단계의 경험의 산물로서, 그 정확한 본질규명은 어렵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퇴보한 교리인 것은 틀림없다”고 하였다. <sup>29)</sup>

골로새 교회공동체를 위협한 이 거짓철학이 추종한 원리로서의 ‘στοιχῆια τοῦ Κόσμου’에 대하여 무리없는 해석은 그리스도를 믿기전에 따르던 종교적으로 유치하고 초보적인 행위를 지적한 것 <sup>30)</sup>으로 간주되나,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교훈의 위협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 ‘στοιχῆια τοῦ Κόσμου’를 ‘기초적 정령’으로 해석하여 천사숭배의 종교적 경향으로 구체화시킨 시도들 또한 우리의 논구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겠다.

둘째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βρώσει καὶ πόσει), 절기(μῆραι ἑορτῆς), 월삭(νεομηνίας), 안식일(σαββατων)준수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골 2:16).

1) 본문 분석

헬라어 본문은 “Μὴ οὖν τις ὑμᾶς κρινέτω ἐν βρώσει

(註) 27) Ibid.

28) Ibid.

29) F.F.Bruce, op.cit., p.232.

30) John Calvin, op.cit., p.575.

καὶ ἐν πόσει ἢ ἐν μέρει ἑορτῆς ἢ νεομηνίας ἢ σαββάτων”이다. 이것을 번역하면 “그러므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근거로, 혹은 절기, 월삭, 안식일의 문제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심판치 못하게 하라”가 된다. *Κρινέτω*는 여기서 ‘비난’(condemn)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Judgment)의 의미로 보여진다.<sup>31)</sup> ‘μερει’는 어떤 범주(category)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ἐν μέρει’는 ‘~문제로서, ~관점에서’로 번역될 수 있다. ‘σαββατων’은 여기서 복수형이지만 단수형태의 안식일과 의미상 차이가 없다.

## 2) 본문 주석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신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 절기나 월삭, 안식일을 준수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신앙이 심판 당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교훈의 이단적 요소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그들은 단순한 유대적 음식규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육식, 포도주, 독한 음료수등의 금지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금욕적 실천교리를 규정하고 있다.<sup>32)</sup> 율법에도 부정한 음식금지의 규정이 있고(레 11:), 몇몇 예외의 경우에서 금주의 규정이 있으나(민 6:3, 레 10:9) 율법자체가 금욕적 규정은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절기, 월삭, 안식일은 연례적, 월례적, 주례적 성일로서 유대인들에 의하여 지켜졌다. 이것들은 모두 유대인의 성스런 절기를 포함한 것으로 후기 유대주의자들, 특히 철학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이들 규정들에 상징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을 부여하여 이것의 준수를 주장하였다.<sup>33)</sup> 특별히 Philo는 절기를 영혼의 환희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상징으로 간주한 뒤에 이 절기 규정의 제거나 파기를 엄중히 책망하고 있다.<sup>34)</sup>

이 골로새 거짓교훈이 주장하는 교리는 사변적이며 금욕적인 성격으로 규명되었는데 이와같은 요소들로 골로새 신자들의 이미 취득한 그리스도안에서의 자유를 왜곡시키려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

(註) 31) A.S.Peake, op.cit., p.530.

32) F.F.Bruce, op.cit., p.243.

33) Findly, op.cit., p.92.

34) Ibid.

든 시도들이 무익한 것임을 폭로시켜준다. 의문에 쓴 모든 규정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폐지되며 완성되었다고 한다. 즉 이와같은 규정들은 그리스도 오심 이전의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이런 그림자에 머문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골 2:17).

셋째로, 그들은 자의적 겸손(*ταπεινοφροσύνη*)과 천사숭배(*θηροσκέια τῶν ἀγγέλων*)를 주장하는 자들이다.

## 1) 본문 분석

헬라이어 본문은 “μηδεὶς ὑμᾶς καταβραβεύετε θελων ἐν ταπεινοφροσύνη καὶ θηροσκέια των ἀγγέλων”으로 이것을 번역하면 “자의적 겸손과 천사숭배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치 못하게 하라”가 된다. 이 귀절은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는 귀절이다. ‘καταβραβευετε’는 일반적으로 ‘~의 상을 빼앗다’(rob A of B)는 뜻으로 번역되나 여기의 문맥상 ‘~에 대하여 결정하다, 혹은 정죄하다’는 뜻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며 이 귀절을 다시 써보면 ‘let no one give judgment against you’(누구든지 너희를 판단치 않게 하라)가 된다.<sup>35)</sup>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θελων ἐν ταπεινοφροσύνη’의 번역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겸손함에 기쁨을 가지며’(taking pleasure in humility, 이것은 헤브라이즘과 연결한 것으로 Winer, Rightfoot, Findly, Haupt가 지지한다), ‘겸손한 목적으로’(Alford), ‘자발적으로 겸손함’(voluntary humility, K.J.V.) ‘자기비하를 주장하며’(insisting on self-abasement, R.S.V.) ‘겸손을 행하기를 원하며’(wishing to do so in humility, Meyer, Ellicot, Soden, Weiss)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요구한 것 이상으로 겸손해 하는 의미로서 ‘자의적 겸손’(gratuitous humility)으로 봄이 자연스럽다.<sup>36)</sup> 이것은 곧 ‘자의적 숭배행위’(εθελοθηροσκειια)와 같은 의미이다.<sup>37)</sup> ‘θηροσκειια των ἀγγελων’에서 속격인 ‘των ἀγγελων’이 목적

(註) 35) A.S.Peake, op.cit., p.531.

36) Ibid.

37) Findly, op.cit., p.92.

의 의미를 가진다.<sup>38)</sup> 즉 천사가 예배의 대상이다.

## 2) 본문 주석

지금까지 골로새서신 몇몇 본문에서 이면적으로 나타나는 골로새 거짓교훈의 이단적 요소들이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의적 겸손이란 자발성을 의미함이 아니라 고의성과 기만성을 내포한다. 즉 이것은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은 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 그 증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함이 겸손하다고 주장함을 나타냄에 있다.<sup>39)</sup>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자의적 겸손행위는 천사숭배와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겠다.<sup>40)</sup> 이 자의적 겸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아래 꿇어 엎드린 한 영혼의 진정한 겸손으로서가 아니라, 불법적인 대상물에 자신을 고의로 비하함이며, 가공적인 겸손에 지나지 않는다.<sup>41)</sup> 이들이 사람을 초월해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자의적 겸손행위를 나타내고 그들에게 경의와 찬양을 올리는 행위들은 순수한 기독교적 예배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sup>42)</sup> 천사숭배는 천사의 존재가 사람들이 자의적 겸손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천사들에 대한 실제적인 예배의식을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43)</sup> 거짓교사들에 의해 숭배되어진 이 천사존재를 'στοιχεία τοῦ κόσμου' (골2:8), 'ἀρχαὶ καὶ ἐξουσίαι' (골1:16)에 연결시키는 견해도 있다.<sup>45)</sup> 그래서 Bruce는 "바울이 이 천사숭배행위를 지적할 때 주관, 권세같은 '기초적 정령' (The elemental spirits) 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추론한 후에 여기에 언급된 천사존재는 그 중 어떤 계급(서열)을 갖는 천사존재를 일반적으로 언급한 것이다<sup>46)</sup> 고 하였다. 이 견해는 좀더 신중성 있게 검토되어

[註] 38) A. S. Peake, op. cit., p. 532

39) Ibid

40) John Calvin, op. cit., p. 585.

41) H. C. G. Moule, op. cit., p. 176.

42) Findly, op. cit., p. 92.

43) F. F. Bruce, op. cit., p. 247.

44) GK. θρόνοι, ἀρχαί, ἐξουσίαι, δυνάμεις, κυριότητες  
를 천사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cf. 엡 3:10; 6:12)

45) A. S. Peake, op. cit., p. 532.

46) F. F. Bruce, op. cit., p. 247

야 할 것 같다. 칼빈은 이 거짓교사들을 미신에 사로잡힌 자들로 간주한 후에 미신적인 사람들은 천사숭배에서부터 시작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였다. 칼빈은 플라톤에게서도 이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플라톤은 "우리가 그들의 상서로운 중재를 위해서 (χαρὶν τῆς εὐψήμου διαπορείας) 천사들에게만 경배해야한다"고 말한다.<sup>47)</sup>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천사들이나 죽은자들이 그리스도 다음가는 제2의 증보자들이요 혹은 그리스도 옆에 있는 자들로 간주되거나, 그들에게 드리는 모든 종류의 경배를 정죄하고 있다.<sup>48)</sup> 결국 골로새 거짓교사들이 신전하는 자의적 겸손은 천사숭배를 겨냥한 것이며 이 모든 경향은 자의적인 숭배행위 (ἐθελοθρησκεία) 즉 미신숭배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없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택하여 자의적으로 숭배한 것이다.<sup>49)</sup> 그러므로 바울은 이같은 자의적 겸손과 천사숭배를 주장하는 거짓교훈에 미혹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골2:18) 이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인식과 환상의 산물로서 헛된 과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갈파한다(2:18).

마지막으로, 골로새 거짓교훈의 이단적 요소는 그들이 '붙잡지도 말고' (Μη ἄψη), '맛보지도 말고' (μηδε γευση), '만지지도 말라' (μηδε θιγῆς) (골2:21)는 규정을 주장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이 거짓교사들의 교리를 바울이 인용해온 것으로서 바울에 의하여 정죄된 규정들이다.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인용개념의 부정적 대상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이런 규칙들이 육체적 쾌락에 빠지는 죄의 경향을 억제케 하고, 반대로 영적 진리가 고양되도록 의도한 금욕적 금지규정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50)</sup> 바울은 이같은 금욕적 규정들은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적 의문에 순종하는 것 (δογματιρεσθε, 골2:20)이며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을 추종하는 것 (κατὰ τὰ ἐνταλματα καὶ διδασκαλίας των ἁν-

[註] 47) John Calvin, op. cit., p. 586.

48) 골 1:16 ff.

49) John Calvin, op. cit., p. 591.

50) Findly, op. cit., p. 92.

θρωπων, 골 2:22)으로 규정하면서 이 금욕적 교훈의 오류를 반박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골로새서신 본문에서 추출될 수 있는 골로새 거짓교훈의 이단적 요소들로서 ‘헛된 속임수로서의 철학’, ‘자의적 겸손과 천사숭배’, ‘유대적 절기 및 율법준수’, ‘금욕적 규정들’에 대한 주석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이들 요소들은 골로새 이단의 성격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으며, 바울이 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궁극적 우월성과 유일한 중보자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천명하는 이유에 대한 반증적 측면으로 간주되어 질 것이다. ♣

## 基督教 勸懲論

원 2년 김 현 규

### 1. 머 리 말

**참된** 교회의 외적 특성은 말씀의 전파와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교회의 당회들은 교인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제멋대로 생활해도 이따금씩 교회출석이나 하고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많은 수의 교인을 거느리려고 권징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권징은 대부분 어느 교파를 막론하고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교회안에서도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실정이다.”

우리는 권징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교회일 뿐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믿는다. 그 외에도 만일 악한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서 훌륭한 지위를 가진 교인으로 남게 된다면,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는 낙인을 찍히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구원의 문은 굳게 닫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 (註) 1) 학습·세계 문답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p.22.  
제 6장 지상교회와 성도의 교회 생활중에 기록되었음.  
2) 골든 H. 클락, 장로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나용화 역)  
서울;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80. p.326.  
3) 존 디센, 증소교회 목회론 (김만중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8. p.264.